

# 제9차 아시아 섬유학회(ATC-9) 참관기

김형섭 · 건국대학교 섬유공학과

## ABSTRACT

This article reports the 9th Asian Textile Conference (ATC-9) held in Taijung in Taiwan from 21st to 23rd, June, 2007. The conference was opened bi-annually by Federation of Asian Professional Textile Association (FAPTA) to exchange the information on Textile industries and research results for Asian Textilists.

**Key Words:** ATC, FAPTA, Textile

## 1. 서 론

아시아 섬유학회는 1982년 대만에서 열린 제1차 한·중 섬유학술대회(故 서울대 이재곤 교수와 대만 Feng Chia Univ의 Lin chung Hua 교수의 발의로 시작된 회의)를 시작으로 매2년마다 개최되어오던 중 1989년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참여국을 아시아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 때 모인 아시아 국가들(홍콩, 일본, 대만, 인도 등)이 범아시아 기구의 결성에 동의하여 태동되었다. 그 해는 마침 한국섬유공학회는 25주년을 기념하고 있었고 인도섬유학회는 50주년을 기념하고 있었다. 그 당시 인도섬유학회 회장이었던 故 R. P. Poddar 씨의 제안에 따라 Federation of Asian Professional Textile Association(FAPTA)로 모임의 이름을 정하였다. 그리고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한양대 송석규 교수가 chairman으로, 인하대 마석일 교수가 secretary로 선출되었다. 또한 1991년에 제 1회 대회를 인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 대회에서 FAPTA를 공식 적으로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그 후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어 이번에 9차 대회를 타이완의 타이중(Tai Jung)의 Feng Chia Univ.에서 치르게 되었다.

이번 ATC-9는 Intelligence, Safety & Ecology라는 주제하에 6편의 plenary lecture, 20편의 invited lecture, 80여 편의 구두발표, 그리고 수백편의 poster 발표로 구성되었다. 특히 plenary lecture는 6개 주요 참가국을 대표하는 섬유공학자, 섬유공학회장 등이 보호복, smart textile 혹은 각국의 섬유산업, 섬유공학회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2. 첫째날 (6. 20.)

ATC-9에 참관하는 한국 참가자들은 인천공항에 6월 20일 오전 10시에 모여 ticketing과 check-in을 하고 12시 30분발 타이페이행 아시아나항공 OZ711편에 몸을 실었다. 한국 측 총 참가자는 80여 명으로 개최국 타이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섬유산업의 다음세대를 이끌고 갈 30대의 젊은 연구원들과 대학원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건국대학교에서도 팔자를 비롯하여 서문호, 고준석 교수, 4명의 대학원생들이 참가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필자의 은사이시며 한국유변학회 초대회장, 한국섬유공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신 서울대 김상용 명예교수와 1993년 한국에서 개최한 ATC-2의 chairman으로 많은 노고를 하신 서울대 고석원 명예교수님께서 참가하여 주시여 후학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타이페이 공항에 도착한 것은 출발 후 약 3시간이 지난 현지 시간 오후 2시 30분 경이었다. 현지의 날씨는 그야말로 찜통 그 자체였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은 일행은 준비된 3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타이중으로 이동하였다. 오래 간만에 만난 타 대학 교수들과 환담을 나누며 가는 동안 버스 밖의 날씨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가 하면 다시 맑은 날씨를 보이는 등 이열대지방의 변화무쌍한 기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타이중의 Plaza International Hotel에 도착한 일행은 각자 짐을 풀고 약간의 담화시간을 갖은 후 다음 날의 본 행사를 위하여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 3. 둘째날 (6. 21.)

이른 아침 wake-up call로 기상하여 서둘러 준비를 하고 아침식사를 하는 호텔 로비 커피숍은 대부분 한국에서 온 우리 일행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비행기, 버스 등의 이동과 낯선 이국 환경에 교수님들은 다소 피곤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별 피곤한 기색 없이 뷔페 음식으로 맛있게 아침을 하는 것을 보니 필자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하는 생각과 이런 젊은 학생들이 있어 섬유산업의



Figure 1. ATC-9 in Taiwan.

미래는 밝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오전 8시 경에 Feng Chia Univ. 도착하였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등줄기에는 벌써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남은 3일이 벌써부터 걱정되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도착하는 바람에 registration desk는 혼잡해졌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손짓 발짓을 통하여 겨우 겨우 등록을 마치고 opening ceremony에 참석하였다. opening ceremony에서는 FAPTA의 회장인 Kish 교수, ATC-9의 Chairman이신 Liu 교수, 그리고 ATC-9의 Chairman Yao 교수님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이어서 각국 대표들의 감사의 말과 인사가 있었다.



Figure 2. Plenary Lecture of Prof. S. S.Najar.

첫 번째 plenary lecture는 이란의 Najar 교수가 'Intelligent and Protective Textiles'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강의 내용이 너무 개론적이고 자료 준비에 신경을 덜 쓴 탓인지 좀 실망스러웠다. 첫 강의가 실망스럽다보니 이미 선입관이 생겨 다른 강의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 이후 여러 구두발표장을 전전하며 아시아 섬유공학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Figure 3. Fashion Show.

welcome dinner는 타이완 학생들이 Carmen, Pi Sheng Chu Hsiang, Roam in Fairy Tale, Concubine, No.3 Line, Gorgeous Color-Love 등의 주제로 디자인한 작품의 패션쇼가 진행되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으로 보여주려는 집행진의 무리한 의도와 학생 작품이라는 다소 세련미가 떨어진 이유로 후반기로 갈수록 참석자들이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작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IFC 2006의 패션쇼와 비교가 되었다. 패션쇼를 마친 후의 dinner는 점심과 마찬가지로 뷔페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점심때의 음식과 유사한 음식으로 준비되어 그렇지 않아도 느끼한 중국음식에 질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돌아오는 길도 아침과 마찬가지로 무덥고 습했다. 우리는 지친 몸을 버스에서 나오는 에어컨디셔너에서 위로를 받았다.

#### 4. 셋째날 (6. 22.)

다시 이른 아침 wake-up call, 준비, 아침식사(거의 동일한 메뉴) 등의 반복을 마치고 2일째 ATC-9에 참석하였다. 이튿날의 plenary lecture는 한국섬유공학회 회장이신 서울대 강태진 교수님의 강의로 시작되었다. 역시 우리 회장님의 멋진 영어실력과 심도 있고 이해하기 쉬운 강의는 다른 강의와 차별성이 느껴졌다. 이후 invited lecture에서는 필자의 학위교



Figure 4. ATC-9 우리나라 참가자(충렬사).

인 North Carolina State Univ.의 College of Textile의 서문원 교수님의 강의가 감명 깊었다. 이후 첫째 날과 거의 맛이 유사한 메뉴로 점심식사를 하고 여유시간을 빌어 주변의 상가를 구경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편의점에 간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후 오후 발표는 전기방사의 mass-production 등의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다. 이날 FATPA meeting에서 차기 주최국이 일본으로 결정이 되었고, 차차기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저녁은 conference banquet이 있었지만 저자는 계속된 중국 음식에 다소 소화에 문제가 생겨 애석하게도 참석하지 못하였다.

## 5. 넷째날 (6. 23.)

ATC-9의 마지막 날이다. 이날은 오전에 Australia의 Postle 교수의 plenary lecture로 시작되어 오전에만 발표가 진행되었다.

ATC-9를 마친 우리나라 참가자들은 다시 3대의 관광버스에 나누어 타고 타이페이로 이동하였다.

타이페이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궁박물관을 들러 진귀한 중국의 문화재를 감상하였으며 귀국 당일에는 충렬사를 방문해 위병교대 의식을 관광하였다. 이날은 최고 38 °C를 넘는 기온으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티셔츠가 땀으로 젖는 날씨였다. 정복을 하고 30여 분에 걸친 교대의식을 하고 있는 젊은 병사들이 안쓰러워 보였다. 아직까지 지구상의 단 2개의 분단국가인 타이완과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이 교차되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위병교대를 관광산업으로 이용하는 뛰어난 중국인들의 상술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다.

우리나라 참가자 일행은 충렬사에서 한장의 단체사진을 남기고 버스에 몸을 실어 공항으로 향했다. 이로서 모든 공식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



김형섭

건국대학교 섬유공학과

1991.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 졸업  
 1993.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석사)  
 1998. North Carolina State Univ.(Ph.D.)  
 1999-2001. 신슈대학교 Post-Doctor Fellow  
 2001-200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2003-2006. 건국대학교 섬유공학과 조교수  
 2007-현재. 건국대학교 섬유공학과 부교수  
 (143-701) 서울 광진구 화양동 1  
 전화: 02-450-4197  
 e-mail: iconclast@konkuk.ac.kr